

# 정부 정책 대응이 '거짓?'

###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측 "유성동 예비후보의 비판에 유감" 표명 "상산고 수준 거점고교 육성 공약에 '거짓' 규정, 정책 취지 왜곡"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교육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 거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유성동 예비후보가 제기한 '상산고 수준 거점캠퍼스 고등학교 육성 공약' '지역명품학교'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거점학교 육성' 정책이 이미 현장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최근 정무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전북 장수 지역을 방문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점을 언급

하며, 해당 공약이 단순 구상이 아닌 실제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전국적 흐름과의 정합성도 주장했다.

이남호 예비후보 측은 교육 정책이 연구 시범 확산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경우 정부 정책 확정 이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약의 핵심은 특정 학교 유형의 신설이 아닌 일반고 집반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자율형 공립고 확대, 학교복합시설 구축, 고교학점제 기반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등을 결합한 '전북형 교육 모델'을 통해 지역 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유 예비후보를 향해 "단편적 정보에 기반한 비판에 그치지 말고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 저하 등 전북 교육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약 설명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비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남호 예비후보 측은 "소모적인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며 "전북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재가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지속가능 혁신·학생 중심 대학' 선언

###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 총장 취임... 대학 새 도약 전기 마련

국립군산대학교 제10대 총장에 환경공학부 김강주(60·사진) 교수가 취임했다.

27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김강주 신임 총장은 지난 2025년 12월 3일 치른 선거에서 68.84%의 지지를 얻어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0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30일부터 2030년 3월 30일까지이다.

김 총장은 국립군산대에서 기획부처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가평판가인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혁신화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해 온 교육·연구·행정 전문가다.

또한 국내 환경·수자원 분야의 권위자로서 그동안 총 113편의 SCOPUS 등재 논문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했으며, 2024년부터 2년 연속 생애 기준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연속 선정되는 등



학문적 성과도 인정받았다.

더불어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한국환경컨설팅협회,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재정 다각화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미래형 캠퍼스 조성 △AI 기반 교육체계 구축 △장학 및 학생 지원 확대 △대학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학생·교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강주 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대학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립군산대는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산·김민호 기자



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 호원대, 재스페인대한체육회와 협약  
호원대학교는 27일 총장실에서 재스페인대한체육회와 스포츠추진도 및 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문산·김민호 기자

## 국제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절약 실천

### 전주교육지원청, 2026 상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전주교육지원청이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등 정세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정부의 자원인보 위기 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부서별·공급별로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점심시간 소등,



대기전력 차단, 적정 실내온도 유지, 종이 없는 회의 운영 등이 추진된다. 청사 내 일상적인 활동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도 강화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3월 28일부터 철저히 시행하고, 대중교통과 카풀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에너지 절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디지털 미래교육 방향 공유

### 완주교육협력지구 워크숍

완주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완주 창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완주교육협력지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완주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별 세부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로봇을 융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퓨처플러스(Future+)'와 창작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창의융합인재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퓨처플러스'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관내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코딩, 로봇 빅데이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완주자용교육과정,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주제별 실천연구회, 청소년 자율동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협력 프로그램도 공유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초등 과학교육 소통마당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과학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교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2026년 초등 과학교육 업무 안내 및 소통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초등학교 과학업무 담당 교원과 과학전담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학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6년 전북 과학교육 주요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과학대회 운영과 각종 업무 안내, 전담교사 운영 매뉴얼, 지능형 과학실 구축 컨설팅, 교육과정 기반 실험 운영 및 안전 지도 방안 등이 소개됐다. 또한 물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의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우수 수업 사례도 공유됐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제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수업 운영 방법과 교구 관리, 실험 안전 지도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 초미세먼지 노출 고령층 폐암 발병 취약 규명

### 전북대 국성호 교수팀, 노화로 저하된 '프리온 단백질' 종양 발생 촉진 경로 입증

초미세먼지(PM2.5)는 말초혈액까지 침투해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500만~80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주요 사망 원인으로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 폐 질환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따라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미세먼지가 생명 유지 기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동물모델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노출과 노년기 높은 폐암 발병률 사이의 병리학적 연관 기전을 새롭게 밝혀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대 국성호 교수(대학원 생리활성소세포과학과)와 이정재 교수(치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고령 생쥐 및 프리

온 단백질(PrP<sup>C</sup>) 결핍 동물모델을 통해 초미세먼지 노출이 수명 단축과 폐암 발생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전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젊은 생쥐에 비해 고령 생쥐의 폐에서는 PrP<sup>C</sup>와 Sirt1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 저하된 반면, Hmfr-1α의 발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양상이 초미세먼지 노출 후의 사망률 급증 및 폐암 발생 감수성 증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PrP<sup>C</sup>가 결핍된 생쥐가 초미세먼지 노출 시 폐암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이 폐기종, 저산소증, 혈관 신생 및 종양 발생을 연쇄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

아울러, 이온과 유기산 위주의 초미세먼지보다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

화수소(PAHs)가 풍부한 초미세먼지가 폐암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유발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는 미세먼지의 특정 화학적 구성 성분이 폐암의 발생률 및 진행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인자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노년기 초미세먼지 노출과 프리온 단백질 그리고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장장 4년에 걸친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증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당 성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IF=11.3) 최신훈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북대 컴퓨터공학부(생리활성소세포과학과)와 심연정 박사(생리활성소세포연구소)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연구원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전북교육청, 직무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연구원 등에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립학교 시설행정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2026년 사립학교 시설 관

련 집행자임을 비롯해 반부패 청렴교육, 기타 업무 전달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추진을 위한 청렴교육을 통해 시설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설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종국 시설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초등 개념기반 탐구수업 강사진 역량 강화

### 탐구수업 강사진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여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탐구 중심 수업 확산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8일 창조미래 시청각실과 회의실에서 도내 초등 개념기반 탐구수업 강사진을 대상으로 '강사진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 방식이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이를 초등 수업혁신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연수에서는 그동안 전북 초등 교사들이 축적해 온 수업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별 탐구수업 설계 연수 템플릿'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14개 시군 수업혁신 강사진이 현장 중심의 수업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수는 교사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개론 과정에서는 탐구수업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다루고, 실험 과정에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통합교과 등 주요 교과별 설계 방법과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로 찾아가는 실험연수'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탐구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